

# 국제수산 월간동향

2025. 11.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 목 차

1. MSC 연구: 참치 어업, 기후변화로 가장 큰 위험 직면..... 3
2. 심해채굴 폐기물, 해양 먹이사슬 · 세계 어업 위협... 하와이 연구... 4
3. 인도네시아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 5
4. 제22차 WCPFC에 대한 PEW, 오션재단 성명..... 7

- MSC 연구에 따르면 참치는 기후변화로 가장 큰 위험에 놓인 어종이며, 회유 경로 변화로 기존 국제 관리체계가 흔들리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정부와 RFMO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 참치 등 고도로 회유하는 어종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며, 수온 변화에 따라 기존 서식지를 떠나 다른 관리 구역으로 이동하고 있음
  - 어종 이동으로 기존 국제 협약과 배분 체계가 무력화, RFMO 간 관할 충돌과 회원국 간 정치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 일부 국가는 신규 어업 기회를 얻지만, 특히 소도서국(SIDS) 등은 주요 경제자원을 잃어 지역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진은 정부와 5개 참치 RFMO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협력적 관리를 구축해야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함

※ 출처: SeafoodSource<sup>1)</sup>

1)<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msc-research-suggests-tuna-fisheries-at-most-risk-from-climate-change> ('25년 11월 17일 검색)

- 하와이대 연구에 따르면 심해저 광물채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플룸이 해양 먹이사슬의 기초를 오염시켜 태평양 참치를 포함한 전 세계 중요한 어업에 피해를 줄 수 있음. 연구진은 상업적 채굴이 본격화되기 전,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음
- 심해채굴 플룸이 동물플랑크톤·마이크로넥톤의 먹이를 오염, 먹이사슬 전체를 교란할 위험이 있음
- 이러한 영향은 태평양 참치 등 고가치 어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큼
- CCZ 시험 채굴 폐기물 분석 결과, 플룸이 '정크푸드' 같은 비자연적 입자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침
  - \* Clarion-Clipperton Zone: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 동태평양 해저에 위치한, 망간단괴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국제해역
- 연구진은 상업채굴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국제기구의 신중한 관리와 규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출처: SeafoodSource<sup>2)</sup>

2)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study-deep-sea-mining-waste-could-impact-fisheries-globally> ('25년 11월 17일 검색)

-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법, 미보고, 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자국 군도 수역에서 255척의 선박을 나포했다고 발표하였음.
- KKP 해양수산자원감시국장 풍 누그로호 삭소노는 리아우 제도 주 바탐에서 해양 주권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며 이 수치를 공개하였음.
- 총 나포 건수 중 22건은 외국 선박이었고 나머지는 국내 선박이었음. KKP는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2025년 5월까지 약 7,743억 루피아(약 4,700만 달러)에 달하는 국가의 잠재적 경제적 손실을 막는 데 성공하였음.

#### ■ 주요 해역 및 선박 출항지

- 삭소노 국장은 나투나와 술라웨시의 해역을 외국 선박의 침입에 가장 취약한 해역으로 지목하였음.
- 북나투나해: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 있는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일부인 이 해역에서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41척의 선박이 나포되었음. 여기에는 인도네시아 선박 35척과 외국 선박 6척, 특히 베트남 선박 5척과 말레이시아 선박 1척이 포함됨.
- 외국 선박: 나포된 외국 선박은 주로 인근 국가에서 출발하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등이 눈에 띈다.
- 해양수산부 장관인 삭티 와후 트렝고노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어민들과 해안 지역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광대한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KKP에 지시하였음.

#### ■ 국내외 범죄자에 대한 이중 제재

- KKP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 제재를 적용하고 있음

- 외국 선박: 불법어업하는 외국 선박은 형사소송에 직면하게 됨. 지난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나포는 2025년 8월 태평양에서 필리핀의 754GT 트롤어선으로, 대부분 어린 참치를 포함하여 1회 조업당 최대 400톤의 어획량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어 심각한 생태계 피해를 초래하였음.
- IUU 어업의 지속성은 인도네시아의 합법 어업 부문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저해함. 인도네시아 어업 부문은 2025년 1분기 동안 전체 생산량이 2% 증가하여 국가 식량 안보와 경제 기여도를 높였음.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KKP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수적임.
- 국내 선박: 불법어업하는 국내 선박은 일반적으로 국가에 벌금을 납부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재는 소형 선박에게만 허용되는 12해리 수역 내에서 조업하거나 자바해에서만 유효한 허가를 받아 북나투나해에서 조업하는 등 어업 구역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됨.

출처: [www.seafood.media](http://www.seafood.media)<sup>3)</sup>

---

3) <https://www.seafood.media/fis/worldnews/worldnews.asp?l=e&id=136356&ndb=1> (11월 7일 기사)

\* 아래는 제22차 WCPFC 정기회의에 PEW와 오션재단이 제출한 성명을 번역한 것임

## ■ 개요

- 제22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정기회의에 The Pew Charitable Trusts(PEW)와 The Ocean Foundation(오션재단)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함. PEW와 오션재단은 위원회의 지속 가능한 수산 활동을 위해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함. 남태평양 날개다랑어(SPA) 관리 절차 채택, 항만국 조치 개선, 위원회 어업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강화, 이행감시제도(CMS) 개선, 해상 전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개선, 기타 어종에 대한 관리 절차 발전, 실질적인 소유자에 대한 데이터 요구 등을 제안함

## ■ 권고 사항

### 1. 남태평양 날개다랑어(SPA) 관리 절차 채택

- SPA 관리절차(MP)를 채택하여, 과학 기반의 사전 예방적 MP로 전환 할 것을 권고함
- FFA(Forum Fisheries Agency)가 제안한 MP를 관리 전략 평가를 통해 시험하고, MP의 지리적 범위, 목표기준점, 어획 통제 규칙에 대한 이견을 해결할 것을 촉구함
- SPA MP를 채택하여, 한계기준점 아래로 떨어지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중간 목표 기준점 수준으로 생물량을 유지해야 함

### 2. 항만국 조치 개선

- 불법 어획된 어류의 국제 시장 유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항만국 조치를 시행해야 함
- WCPFC는 항만국조치협정(PSMA)과 부합하게 기구의 항만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함: 1) 입항할 수 있는 항구 지정 및 사전 입국 신청을 요구; 2) 항만국 판단으로 입항 승인 및 거부; 3) 항구에서 위험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효과적인 국내 협업 및 정보 교환

### 3. 위원회 어업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강화

- 전자 감시(EM) 표준을 개선하고, 데이터 수집 신뢰도를 높여야 함
- 전자보고 및 전자감시 작업반에 대한 작업 지원을 계속하고, EM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보증 절차 개발을 우선시해야 함
- 연승어업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범위를 늘려야 함, FFA의 SPA MP 제안에서 30%의 오퍼버 커버리지를 요구하는 조항을 채택해야 함

### 4. 이행감시제도(CMS) 개선

- CMS를 개선하여 회원국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식별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CMS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이행위원회가 진행 중인 작업들을 속히 완료할 것을 지시해야 함
- CMS 과정에서 오퍼버의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참여를 허용하는 지침 개발, 불이행 사례들에 대한 대응을 안내하는 시정 조치들을 개발해야 함

### 5. 해상 전재 활동 모니터링 및 보고 개선

- 해상 전재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위원회의 능력을 개선해야 함
- 해상 전재에 대한 더 강력한 조치를 채택하여, 다른 참치 RFMO의 기준에 맞춰야 함
- 전재신고서 제출 기한 단축, IMO 번호 요구, 동일한 항차에서 같은 선박의 수취 및 하역 행위 금지, 비어류 공급 및/또는 선원 이동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 등 강화된 조치를 포함해야 함

### 6. 기타 어종들의 관리절차 개발

- 관리어종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관리 절차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함
- 2026년 초에 IATTC-WCPFC 공동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태평양 참다랑

어 관리절차 협상을 마무리해야 함

- 2026년 초에 관리자, 과학자 및 이해 관계자를 위한 대화 회의를 개최하여, 눈다랑어 관리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함

## 7. 실질소유자에 대한 데이터 요구

- IUU 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에 관련된 선박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함
- NGO에서 제출한 문서의 권고 사항들(\*)을 지지하며, 위원회가 이를 시행할 것을 촉구함

\* 실질소유자(beneficial owner) 정의 마련, 선박 허가 부여 조건으로 실질소유자 정보 요구, 실질소유자 정보 공유, 실질소유자 관련 집행역량 강화 등